

유승민 사퇴 막기 나선 비박계 중진들

이재오 “당 지도부가 청와대 의견 당에 전달하는 기구나”

정병국 “전당대회때 수평적 당·청관계 공약 생각하라”

새누리당 진박(진박근혜)계 의원들이 1일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 오는 6일을 사퇴 시한으로 사실상 압박을 계속했다. 이에 비박(비박근혜)계 중진들이 이날 당 공식회의에서 정면으로 제동을 걸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는 등 여당 내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진박계는 외곽에서 유 원내대표 흔들기를 계속했다. 이장우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법 제의 처리가 매듭되는 시점까지 일단 기다려 볼 생각”이라며 “6일 정도에는 (유 원내대표의) 거취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진박계 의원은 “백년 양보해도 6일째 사퇴 의사를 밝히고 추경을 매듭지는 뒤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옛 진이계가 중심이 된 비박계 중진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진박계가 지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유 원내대표 사퇴를 중용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한 개인을 ‘희생양’ 삼아 책임을 지우지 말고 지도부 전체가 공동의 책임을 질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수세에 몰렸던 유 원내대표의 행보에 다시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진박계 만능적인 서정원 최고위원과 진박 핵심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 불참했다. 이들은 비박계가 수적으로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최고중진회의에 자주 불참해 왔다.

비박계의 만능적인 이재오 의원은 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이 앞장서서 유 원내대표를 사퇴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사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김영우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진박계 최고위원들을 겨냥해 “당 지도부는 의원 총회 결과를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리인데, 거꾸로 청와대 의견을 의원들에게만 전달하는 모양새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들이) 다들 수평적이고 대등한 당·청 관계를 이끌어갔다는 공약을 해서 우리가 뿔어났는데 그 역할을 과연 제대로 하는지 회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병서 의원은 “유 원내대표는 의총의 결과로서 선출된 자리이고, 앞으로 거취에 대해서도 유 원내대표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국 의원은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대해 “유 원내대표 사퇴에 대해 원칙도 없고 의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묻지도 않고 최고위원들이 모두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다 옳은 말씀”이라고 답했고, 이재오 의원은 ‘수평적 당청관계’ 공약 발언에 대해 “전대 때 최고위원들이 했던 얘기와 공약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도 진박계의 공세를 아랑곳하지 않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예정대로 최고중진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오후에는 소속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방위 전체회의에도 참석했다.

이처럼 진박계가 ‘배수진’을 친 가운데 유 원내대표와 비박계가 정면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점차지면서 오는 6일을 전후해 당내 계파 간 대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1일 오전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가라운지

박지원 “유승민 못 지키면 다음은 김무성 차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1일 최근 새누리당 사태와 관련 “충국적으로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켜주지 못하면, 참으로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다음 타깃은 김무성 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에 출연, “태풍은 강하지만 길지 않고, 파고가 오지만 복구가 된다. 유 원내대표는 어쩔 수 없이 물러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새정치연합 내부 갈등에 대해서는 “정권교체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협력해야 하지만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독식, 자기 편한 사람만으로 인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장병완 “방문진 이사 구성 지역대표성 담보해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구성과 관련, 지역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들로 이사회가 구성되도록 해 방송의 지역성 확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명에 대해 포괄적 개념의 기준만 있을 뿐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방송의 발전을 위한 어떠한 자격조건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전국에 가장 많은 지역방송사를 두고 있는 MBC의 특성을 감안하면 지역 여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지역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로 방문진 이사를 구성토록 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이하 방문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 방문진법에 따르면 임원(이사) 임

황주홍 “구제역 항체형성률 기준 부과 과태료 환급해야”

항체형성률 기준만으로 구제역 과태료를 부과한 595 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환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하지 않고 가족을 거러 또는 출하하는 소유자, 관리자, 가족운송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때 백신 접종 상태는 항체형성률을 조사해 판별한다. 그러나 농립부는 지난 3~4월 감사를 한 결과, 항체형성률 기준치만으로 부과 기준을 설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황의원은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구제역 예방접종 미흡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농가 793가구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595 농가가 ‘항체형성률 기준미달’이라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원탁회의’에 정치적으로 미묘한 관계에 있는 인사들이 참석해 눈길을 모았다.

내년 총선에서 광주를 중심으로 새정치민주연합과의 한 판 대결을 선언한 무소속 전정배 의원(서구을)은 이날 회의에서 당 차원의 총력전을 주문하며 “아직도 내가 (새정치연합 소속인지) 헷갈린다”고 말해, 썰렁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천 의원은 이어 새누리당과의 초당적 협력을 주문하고 광주 민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 대표와 천 의원은 이날 악수를 하기는 했지만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

아직까지 최고위원직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주승용 의원은 문재인 대표가 들어 서면서 발언이 중단되자 “하필 내가 얘기

국회 ‘문화수도 원탁회의’ 미묘한 만남

최고위원직 복귀 거부 주승용, 문재인 대표에 농담

정청래 “주 의원과 정부 입장 변화 이끌어 내겠다”

무소속 천정배, 문 대표와 악수하며 “초당적 협력”

하고 있는 도중에 오셨다”며 농담을 던져 예전보다 나아진 분위기를 반영했다.

‘공갈’ 발언으로 주승용 의원의 최고위원직 사퇴 파동을 일으킨 정청래 의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킴이’로 나서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

에서 문광위 간사를 맡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제정 및 재정 확보에 역할을 했다”며 “같은 행안위 소속인 주승용 의원과 함께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표에 대한 압박에 나서 ‘당

론’ 채택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들은 공동 발제문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등 지역 현안과 관련,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여론에 밀려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며 “광주 현안을 계류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원기념사업회 김상운 이사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시티연구원 육성, 민주주의 전당 건설 등 새정치연합은 자신들이 만들어 낸 사업에 대해 비전을 갖고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인사들은 문 대표에게 “광주 민심이 새정치연합에 대한 실망감이 큰 상황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라도 잘 해결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 문화중심도시특별법 시행 규칙 등 시행령 25개

野, 母法에 반영토록 개정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 시행규칙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모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골라 이를 모법(母法) 내용에 반영하는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부가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청 권한을 부정하는 만큼, 그동안 행정부에 위임한 시행령의 일부를 국회가 직접 손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당 정책위원회는 우선 ‘상위법 위반 시행령·시행규칙’ 사례로 25개 법안을 선정, 법률 검토를 마치는 대로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에 는 지난달 1일 당에서 발표

한 14개 위반사례와 당에서 추가로 발굴한 11개 법안이 포함됐다.

새로 발굴된 사례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별도 설치를 무력화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 시행규칙 ▲일반경쟁 계약에 해당하는 정부 광고 계약을 훈령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비식별화된 신용정보의 경우 제3자에 정보를 제공할 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등이 선정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안1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체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사기·성범죄 / 개인회생·파산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상담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공 고 문

조합원 및 관계채우 여러분께!

조합원 여러분!
2015년 6월 25일 한마음정형외과 빌딩 8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목포 (구)용해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총회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른바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예경)의 사실과 다른 주장에 현혹되지 않고 조합장 최금석과 이사 이정환, 감사 박문욱에 대한 재신임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조합원 여러분께 따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조합원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보내드린 호소문을 통하여 약속드린 바와 같이 저 조합장 최금석은 여성을 (구)용해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살아갈 것을 맹세합니다.

관계채우 여러분!
당 조합은 2015년 6월 8일자로 (주)서진산업개발(대표 김종석)에 시행위탁계약 해지통보를 하였으며 6월 25일 개최된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계약해지 사항이 가결됨으로써 (주)서진산업개발은 이미 시행업무대행사로의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용해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우리 조합이 직접 시행사로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당 조합과 협의 없이 (주)서진산업개발 대표 김종석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일체의 계약이나 약속은 무효이며 실효가 없음을 천명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서진산업개발에서 당 조합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각종 계약 또는 서류와 관련된 업체 및 관계자는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구)용해아파트 재건축 조합(061-276-0085, 010-8682-0093)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2일

목포 (구)용해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 최금석